

2016년 10월 18일, 구좌읍 하도리 김군자씨 댁, 송정희 조사.
김군자(여, 1940년생, 구좌읍 하도리)

[제보자] 우리 동네, 우리 동네 이렇게 저, 비는 조금 보슬보슬 올 때,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깐 큰, 저 구신인데 ‘기신세 기신세’ 헤여. 경 험 사름이 기냥 막, 거멀가치 사 가지고, 그냥 영 풀 벌건 산 딜로 무신, 지나갈 때 그 밑으로 그, 이 알로 지나 가면은 죽넌 험 말은 들어났지.

경 헤사 죽은 사름은 엇고게. 거기 나온덴 허는 말을 들어났어. 그런 말만 들었주.

[조사자] 거기가 어디마씨?

[제보자] 거긴 이 동네 어딘디. 확실한 장소는 몰라.

- 핵심어 : 구좌읍 하도리, 비, 구신, 기신세